

장막충형 호산구성 위장관염 2례

서울의대 내과, 서울대학교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

김상현^{*}, 이병재, 손지웅, 조상현, 민경업, 김유영

배경 : 호산구성 위장관염은 호산구의 위장관 침윤과 말초혈액 호산구혈증, 위장관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불명의 위장관 질환이다. 그 발생빈도는 낮지만 대개 재발성이며 다양한 임상상을 나타낸다. 그 임상상에 따라 장막충형, 근육충형, 장막충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장막충형은 호산구성 복수와 복막염을 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빈도가 가장 낮다. 저자들은 호산구성 복수를 보였던 장막충형 호산구성 위장관염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1 : 32세 남자 환자가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하루 10여회 이상의 설사, 구토,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인근 병원에서 10여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장음은 감소되었고 이동탁음이 있었다. 일반혈액검사서 백혈구수는 42,500/mm³, 호산구수는 82%인 39,950/mm³이었다. 복수검사서 백혈구수는 1,000/mm³ 이상이었고 그 중 호산구는 97%였다. 기생충에 대한 총란검사나 ELISA검사는 음성이었다. 복부 CT에서는 여러부위 장벽비후와 복수가 관찰되었다. 위내시경에서는 만성표피층 위염의 소견이며 조직검사 역시 만성위염의 소견이었다. 직장내시경에서는 특이소견없이 조직검사는 만성비특이성 장염의 소견이었다. 내원 4일째부터 prednisolone을 투여하였고 다음 날부터 설사 호전, 백혈구, 호산구수의 감소를 보였고 추적 복부초음파에서도 복수 감소가 관찰되었다.

중례2 : 15세 남자 환자가 3년 전부터 있어온 간헐적인 복통과 오심, 구토, 내원 4개월 전부터 나타난 복부 팽만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3년전부터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budesonide와 cromoglycate를 사용중이었다. 내원 1개월 전 인근병원 방문당시 백혈구수는 11,800/mm³이었고 그 중 호산구는 31%이었다. 복수검사서 백혈구수는 7,400/mm³, 그 중 호산구는 96%이었다. 복부 CT에서는 미만성 장벽 비후의 소견을 보였다. Prednisolone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

전북지방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알레르겐의 변화 - 1985년/1997년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최병호^{*} · 이홍범 · 이용철 · 이양근

천식의 빈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그이유로는 다양한 보고들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시사하였다. 이 등은 1985년 전북 지역의 알레르기 질환 환자에 대한 원인 인자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봉개원보에 의하면 전북 지역은 약 10년 사이에 인구수는 약 19만명 정도가 감소하여 인구밀도도 23명/km² 정도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및 광공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과 같은 서구화 주거형태가 100% 이상 증가하였다. 때문에 저자들은 이러한 직업의 변화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985년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1997년 2월부터 1998년 2월 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에 내원하여 피부 알레르기 검사 및 특이 IgE를 측정하였던 총 3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은 아토피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만성 두드러진 및 음식 알레르기를 무관하게 포함 시켰으며 남자는 174명, 여자는 165명이었다. 지역적 분포는 도내 6개 시지역은 도시권으로, 기타 지역은 비도시권으로 분류하였다. 피부 알레르기 검사는 영국 Bencard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prick test를 시행하였고, Northern society에서 추천한 semi-quantitative grading system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총대상 환자 중 남자는 174명, 여자는 165명이었다. 도시권 거주자는 276명이었고 비도시권은 6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대상환자의 질환 분포는 도시권의 경우 기관지 천식 97예,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각각 51, 16예였다. 기타 피부표기종과 결막염 및 만성 두드러진 등이 19예였다. 주거 환경의 양태는 아파트 거주자가 164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양육 및 한옥 순이었고, 침대 생활자는 38%를 차지하였다. 알레르겐은 도시권의 경우 집먼저 진드기군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상 양성을 보인 경우는 70예 있으며 동물털 및 비듬군이 88예를 보여 더욱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도시권의 경우에는 집먼저 진드기군에 대한 양성 빈도가 26예로 꽃가루군에 대한 23예와 동물털 및 비듬군에 대한 15예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전북 지역의 경우 온돌 생활자에서 알레르기 환자가 더욱 많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최근 주 알레르겐도 변하고 있었다.